

# ‘수준 이하’ 해외파, 계속 국가를 대표해 뛰어야 하나?

## 신태용호, 유럽 원정 2연전서 ‘수준미달’ 기량 중원 압박 실종...2경기서 7골 ‘모래알 수비’

아침차게(?) 준비했던 유럽 원정 2연전에서 신태용호는 한국 축구를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거스 히딩크 전 감독 후폭풍으로 갈피를 못 잡았던 신태용 감독은 이번 2연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엔스의 티소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1-3으로 완패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에서 유여곡절 끝에 본선행을 이뤄냈던 신태용 감독은 이번 유럽 원정 2연전을 준비하면서 K리그 소속 선수들을 배려해 전일 해외파로 선수단을 꾸렸다.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부상에서 회복한 기성용(스완지 시티),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권창훈(디종) 등 유럽과 선수들을 대거 불러 들였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수비수에는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도 어김없이 뽑혔다.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

데), 김주영(허베이 화샤), 김기희(상하이 선화) 등이 이번 유럽 원정 길에 동행했다. 해외 리그에서 뛰는 만큼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2연전에서 보여준 해외파들의 전체적인 기량은 그야말로 수준 미달이다. 이들은 K리그보다 수준이 높은 해외 리그에서 뛰는 점에서 대표팀의 명단에 단골 손님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 동안 보여줬던 이들의 실력은 기대감을 커녕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줬다. 그동안 해외파 선수들 대부분은 소속팀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K리거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으며 대표



팀에 무협임성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을 제외하고 소집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번 2연전에서 그 실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대로 된 압박은 볼 수 없었고 부족한 선수 탓에 몸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선수들은 갈광질광하며 상대의 먹이감이 됐다. 신태용 감독이 정장적인 전술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받아들여야 하는 선수들의 이해도는 과연 국가대표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다. 중원에서 압박은 실종됐고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수들에 쫓겼다. 여기에 모래알 조직의 수비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2경기서 7골을 내준 것이 단적인 예다. 그동안 한국 축구의 강점으로 꼽혔던 측면 공격도 사라졌다. 간간히 이어지던 크로스와 패스는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팬들의 한숨을 절

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번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보여준 해외파들의 기량은 꾸준히 경기에서 내서는 K리거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제 신태용 감독에게는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K리그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11월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준비하고 12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 대회에 참가한다. 내년 1월에는 약 2주 동안 해외 전지훈련과 3월에도 두 차례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K리그 선수들의 합류로 신태용 감독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지만 소속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해외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뉴시스



## 분위기 바꾸려다 궁지로...위기의 신태용 졸전에 비난 여론 최고조...최정도로 나설 내달 평가전 부담 ↑

유럽 원정에서 반전을 꿈꾸던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연이은 풀전으로 비탄 끝에 물러가게 됐다. 당장 감독직을 걸고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로 향하는 로드맵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엔스의 티소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1-3으로 패했다. 지난 7일 러시아 원정에서 2-4로 무너진 한국은 3골 7실점의 초라한 성적으로 유럽 원정 2연전을 마쳤다. 신태용의 의미가 강한 평가전에서 완벽한 모습을 기대했던 팬은 많지 않다. K리거들의 이탈로 선수 구성이 어려웠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기력은 수준에 한참 못 미쳤고, 최종예선에서의 답답한 축구에 염증을 느낀 팬들은 또 한 번 큰 분노를 느껴야 했다. 문제가 가장 부각된 포지션은 역시 수비다. 23명 엔트리 전원을 해외파로 구성한 신태용은 두 경기 모두 변형 수비 전술을 꺼내들었다. 센터백 중 한 명이 상황에 따라 미드필드와 수비를 오가는 이 전술은 수비백과 포백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 감독은 U-20 대표팀 사령탑 시절 김승우에게 이 역할을 맡겨 아르헨티나를 쓰러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원정에서는 포어 리베로 시스템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두 경기 모두 전술의 중심에 있던 장현수에게도 합격점을 주기 어려웠다. 공격 전론 요원인 이청용의 왕백 변신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느슨하게 밀어붙였던 러시아를 상대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청용은 측면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한 모로코에는 완벽하게 당했다. 한정된 자원에서 자신만의 전술을 펼치고 싶었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짧은 연습 기간 탓인지 선수들은 전술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3골이 나왔지만 공격이 잘 풀린 것도 아니었다. 두 경기 세 골을 넣긴 했지만 모두 승부가 기운 뒤에 나온 득점이었다. 돌아가면서 최정방을 맡은 황의조, 지동원은 모두 기대 이하였고, 토트넘 손흥민과 대표팀 손흥민의 차이는 여전했다. 신태용 감독에게 이번 유럽 2연전은 흔히 치르는 평가전이 아니었다. 지난 7월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소극적인 경기로 질타를 받아야 했다. 행가레 논란과 거스 히딩크 감독 부임설은 경기 외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자신과 선수들을 향한 여론을 잘 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평가전은 월드컵을 포커스로 맞추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나는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경기력과 결과 모두 내야 한다며 반전을 다짐했지만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됐다. 최악의 10월을 보낸 신태용 감독은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린 2연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월드컵 본선을 위해 여러 선수와 전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시기이지만, 분위기가 테스트에만 포커스를 맞출 상황은 아니다. 11월 A매치 기간에는 유럽 원정에 함께 하지 못했던 K리거들까지 합류가 가능하다. 이때도 반전을 꾀하지 못하면 지금도 회미한 희망의 불빛은 완전히 꺼질 수도 있다. 당분간은 신태용 감독의 머릿 속이 꽤나 복잡할 듯 하다.

## ‘나쁜 손’ 대처하는 쇼트트랙 태극전사들의 자세, ‘압도적인 실력’

### 경합 어려울 정도 압도적 실력 반칙 자체 차단

일부 중국 선수들의 반칙성 플레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세계 최강다운 대처법을 내놓았다. 경합이 어려울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반칙 시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쇼트트랙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시즌 첫 국제대회인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여전한 기량을 뽐냈다. 여자부 간판스타인 최민정(19·성남시청)은 1차대회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기도 했다. 하지만 매 순간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상대의 도를 넘어서는 견제에 몇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차대회 여자 500m에서 최민정이 판커신(중국)의 방해에 페이스를 잃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판커신의 이같은 행동이 처음은 아니다. 판커신은 올해 초 2017 샷

포로 동계아시아게임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도 심석희(20·한국체대)의 무릎을 잡아채 실격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쇼트트랙 팬들 사이에서는 나쁜 손으로 유명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만난 최민정은 판커신과의 충돌을 떠올리며 “판정까지 갈 정도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석희의 생각도 같았다. 완벽한 레이스로 반칙의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석희는 “계주에서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상대의 방해에) 걸리지 않게 더 완벽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선태 감독은 “중국이 여자 500m에 큰 기대를 하고 있기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부딪힘조차 없을 정도로 압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대회에서 금 3, 은 1, 동 4개를 목에 걸며 금빛질주의 쾌거를 일궈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10일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적으로 이기기 위해 대처하겠”고 다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순간 스피드를 올리거나 조금 기다려서 앞에 있는 선수들이 힘 빠질 때 나가든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손을 쓰는 것이 우리 종목의 특성이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안전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호날두의 포르투갈, 뒤집기로 러시아행 확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를 러시아에서 볼 수 있게 됐다. 호날두가 속한 포르투갈은 11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 B조 최종전에서 스위스를 2-0으로 꺾었다. 9승1패(승점 27)로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포르투갈은 골득실(포르투갈 +28·스위스 +16)에서 앞선 2위로 러시아월드컵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호날두는 통산 4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 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호날두는 이날 90분을 모두 뛰며 승리를 이끌었다. 승리가 절실했던 포르투갈은 전반 41분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12분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맨체스터 시티)의 패스를 안드레 실바(AC밀란)가 왼발로 밀어 넣어 2-0을 만들었다. 스위스는 10경기에서 9승이나 거

두고도 통틀어 1 패로 플레이오프에 내몰렸다. 20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도 무사히 예선을 통과했다. 프랑스는 벨리루스와의 A조 최종전에서 2-1로 이겼다. 승점 23(7승2패)이 된 프랑스는 스웨덴(승점 19·6승3패)의 추격을 뿌리치고 1위를 확정했다. 같은 조의 네덜란드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네덜란드는 스웨덴에 2-0으로 꺾으며 승점 19(6승1무3패)가 됐지만, 스웨덴에 골득실(스웨덴 +17·네덜란드 +9)에서 뒤져 3위로 밀려났다. 뉴시스

## ‘원맨쇼’ 메시, 표류하던 아르헨티나 구출

### 에콰도르전 해트트릭...아르헨티나 3위로 12회 연속 러시아행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표류하던 아르헨티나를 구했다. 아르헨티나는 11일(한국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 10차전에서 에콰도르를 3-1로 꺾었다. 이 경기 전까지 6위에 머무르며 러시아행이 불투명했던 아르헨티나는 승점 28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며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1974년 독일대회부터 12회 연속 출전이다. 승리 외에는 돌피구가 없었던 아르헨티나는 시작부터 악몽에 빠졌다. 전반 38초 만에 에콰도르의 기습 공격에 선제골을 내줬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던 상황을 정리한 선수는 메시였다. 메시는 전반 12분 안행 디 마리아(파리생제르망)의 패스를 왼발슛으로 연결해 원맨쇼의 시작을 알렸다. 메시의 득점포는 8분 뒤 재가동됐다. 상대 수비진의 패스를 가로챈 메시는 골대 상단을 향하는 강력한 슈트로 팀에 2-1 리드를 안겼다. 뉴시스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17분에도 메시의 득점이 터졌다. 수비 방해요 균형은 잃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다. 승리를 직감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메시에게 달려들어 환호했다. 남미예선 최종전에서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여러 팀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메시의 동료인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가 멀티골을 터뜨린 우루과이는 볼리비아를 4-2로 제압하고 2위를 확정했다. 같은 시간 페루와 1-1로 비긴 콜롬비아는 승점 27로 4위를 확보, 러시아행의 티켓을 탔다. 승점 26의 페루는 5위로 밀려났다. 남미예선 상위 4개팀은 월드컵에 직행하고 5위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코파아메리카 우승팀인 칠레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칠레는 이미 1위가 확정된 브라질에 0-3으로 패하면서 6위가 됐다. 칠레는 페루와 같은 승점 26을 벌였으나 골득실에서 2골 뒤져 고개를 숙였다.